

## 칼럼

## 건설산업의 미래와 건설공제조합

정완대 | 건설공제조합 이사장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건설산업은 하향세가 완연하다. 공공 건설 물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공중별로는 주택, 건축, 토목 모두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그나마 해외건설 수주 실적이 대폭 증가하면서 국내 건설산업의 침체를 상쇄하고 있는 형국이다.

건설산업의 이 같은 하락을 보면서 일각에서는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야기하기도 한다. 국민소득 2만~3만 달러 시대의 건설산업과 국민소득 1만 달러 이하 시대의 건설산업이 같지 않다는 것인데, 국가 성장 경로에 따라 건설산업의 중요도, 비중 등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속되는 건설산업의 침체를 보면서 이제 우리 한국의 건설산업이 이 같은 전환기를 맞이한 것이 아니겠냐는 추측이다.

국가의 성장이 사회간접자본 등 근본 인프라의 확충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점에서 이 같은 추측은 과하지 않다고 본다. 더욱이 선진국들의 예에서도 건설산업의 라이프 사이클은 정점을 변곡점으로 한 유사한 경로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성장 이후의 건설산업은 어떠한가? 연이은 산업 규모의 축소와 역할 감소 속에서 자연스러운 퇴조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인가? 필자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

건설산업이 인류에게 주는 의미로부터 새로운 생산 양식을 위한 고민까지 우리 건설산업의 미래를 밝혀줄 수 있는 요인은 여전히 다양하다고 생각한다.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3대 생활 요소 중 주(住)는 건설을 통해서만 가능한 영역이다. 다시 말해 건설은 인류 생존을 위한 필수 산업이다. 내구성

을 바탕으로 한 반영구적 존속 기간이 건설 생산물의 특징이라 하여 새로운 수요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개발 시대에 필요로 하던 밀집된 노동력을 위한 도시에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기 위한 도시나 주거 양식의 요구는 말 그대로 산업 패러다임의 전환과 함께 동반되는 것이다. 건설산업 미래의 또 하나의 키워드는 융합이라 생각한다. 이미 유비쿼터스나 클러스터와 같은 건설과 IT가 융합한 생산물의 모습이 선을 보이고 있으며, 생산 방식에 있어서는 건설과 금융이 결합하여 전통적인 생산 방식으로부터 탈피한 제3의 개발 방식이 진화하고 있다.

건설산업의 이면에서 건설 금융의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공제조합은 이 같은 건설산업의 미래를 건설 금융에 반영하여 건설산업이 다시금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해외건설, 신인프라 건설, 생산 방식의 다양화라는 미래 건설의 비전에 부합할 수 있도록 건설공제조합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이를 위해 조합은 조합원들의 해외 진출을 촉진할 수 있는 해외건설 보증은 물론, 신기술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보증 지원과 개발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금융 지원 등 조합원 지원 프로그램을 조합의 중장기 경영 계획에 반영했다. 착실한 이행을 통해 조합원들의 사업 번영에 일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건설산업의 미래는 주어진 운명 속에 있기보다는 우리 건설인들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 지금과 같은 침체기야말로 새로운 환경에 맞는 우리들의 운명을 재설계할 기회가 아닐까 생각해본다.